

클린스만호, 이라크 격파... '플랜B·무실점' 아시안컵 이상 無



이재성이 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전반 40분 선제골을 넣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이재성 선제 결승골 지키며 1-0 승...전반 1.5군·후반 베스트 11 가동 6연승 행진·7경기 연속 무실점 긍정적...이강인 퇴장·1득점 '아쉬움'

클린스만호가 64년 만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도전을 앞두고 이라크와의 최종 모의고사에서 플랜B 가동과 무실점 운영을 펼치며 중동팀 상대 '에방 집중'을 마무리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시간 6일 카타르 아부다비의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이재성(마인츠)의 선제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1-0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클린스만호는 A매치 6연승 행진과 함께 7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며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경기를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클린스만호는 이날 플랜B 가동과 무실점 행진이 가장 큰 수확으로 꼽힌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반전을 사실상 1.5군 전력으로 꾸려 이라크를 상대했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조규성(미트윌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핵심 유럽파'를 벤치에 앉혀두고 오

현규(셀틱), 홍현성(헨트),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등 '젊은피 해외파'를 선발로 내세웠다.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이나 경고누적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려는 클린스만 감독의 플랜B '전술 실험'이었다.

대표팀에서 별로 발을 맞춰보지 않은 선발 명단을 택한 덕분에 경기 초반 대표팀의 공격 작업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표팀은 공격수와 수비수의 간격을 20m 정도로 콤팩트하게 운영하며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이라크의 공세를 초반에 막아내는 데 집중했다.

수비 뒷공간을 노린 이라크의 역습에 위험한 상황도 노출했지만, 실점을 막아내는 성과도 냈다.

여기에 전반 40분 이재성의 중거리포로 득점까지 따내며 클린스만호는 전반전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플랜B 전술 실험을 마칠 수 있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벤치에서 대기하던 정에 멤버를 대거 투입하며 이번 아시안컵

에서 가동한 베스트 11을 출전시켰다.

손흥민과 조규성이 사실상 투톱 스트라이커를 이루고, 좌우 날개에 황희찬과 이강인이 포진했다.

조규성의 제공력과 사실상 프리돌인 손흥민이 중앙에서 득점을 노리고, 황희찬과 이강인의 측면 크로스가 이라크의 수비진을 괴롭혔다.

특히 직선적이고 저돌적인 돌파를 선보인 황희찬과 뛰어난 개인기를 앞세워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는 이강인의 '비대칭성 공격 패턴'은 이라크 수비진을 흔드는 데 좋은 역할을 했다.

다만 후반에 많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추가 골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은 '욕에 타'다.

한국은 이날 전후반을 통틀어 14차례 슈팅을 시도해 1골밖에 만들지 못하며 완성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조규성의 슈팅 상황에서 이라크 수비수의 핸드볼 반칙과 손흥민의 돌파 과정에서 골키퍼 손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페널티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필드골이 적은 건 본선 무대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할 사안이다.

여기에 후반 막판 이강인이 상대 선수의 도발에 엘로카드를 받으면서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한 장면도 본선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었다.

/연합뉴스

'피겨' 차준환 날아 오르다

275.94점으로 종합선수권 8연패
태극마크·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

7일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78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남자 시니어 프리스케이팅에서 차준환(고려대)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제78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대회 8연패 금자탑을 쌓으며 차기 시즌 태극마크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모두 거머쥐었다.

차준환은 7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89.35점, 예술점수(PCS) 90.08점, 총점 179.43점을 받았다.

이로써 쇼트프로그램 점수 96.51점을 합친 최종 총점 275.94점으로 2위 이시형(241.05점·고려대), 3위 서민규(232.62점·경신중)를 큰 점수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차준환은 2017년부터 대회 8연패를 이어갔고, 이번 대회 남자 싱글 상위 3명에게 주어지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24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도 손에 넣었다.

아울러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점수와 이번 대회 점수를 합산해 남자 싱글 5명의 선수에게 부여하는 차기 시즌 태극마크도 받았다.

이날 차준환은 발목 부상 여파로 4회전 점프를 한 차례만 뛰는 등 프로그램 구성 난도를 낮췄다. 그는 첫 번째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 단독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했고, 곧바로 트리플 악셀, 트리플 러츠-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도 실수 없이 뛰었다.

점프 3개를 연달아 수행한 차준환은 안정적인 플라잉 카멜 스핀(레벨4)으로 연기의 완성도를 높인 뒤 트리플 러츠 단독 점프까지 깨끗하게 성공했다.

우아한 스텝시퀀스(레벨4)로 관중들의 박수를 받은 차준환은 10%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 연기도 몰 흐르듯 이어갔다.

차준환은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 트리플 루프, 트리플 플립 점프를 연이어 클린 처리했고,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3), 코레오시퀀스,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국내 대회 일정을 마친 차준환은 이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ISU 사대륙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뒤 3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 2위 이시형과 4위 김현경(한광고)도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선다. 3위 서민규는 나이 제한 규정으로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김용환·김주현 영입 '수비 강화'

김용환, 스피드·체력 강점
김주현, 수비형 미드필드 가능
U22자원 김동욱 임대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체력왕' 김용환(31)과 '멀티플레이어' 김주현(27)을 FA로 영입해, 수비를 강화했다.

김용환은 K리그 통산 184경기에 나온 11년 차 베테랑 측면 수비수로 2014년 인천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2019년부터 포항에서 활약한 그는 김천삼무에서 군복무를 마쳤다.

스피드와 체력이 강점인 김용환은 과감한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팀 득점에 역할을 하고 있다. 좌우를 가리지 않는 그는 원포워드 역할까지 소화할 수 있어 전남의 전술 옵션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용환은 "전남 홈경기장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전남에 입단하게 돼 감회가 새롭고 팀이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겠다"고 입단 소감을 언급했다.

전남은 중앙 수비수 김주현과도 FA 계약을 맺었다. K3 왕원시청에서 62경기에 나선 그는 지난 시즌에는 신생팀 천안시티FC에서 K리그2 14경기를 소화했다.

김주현은 184cm 77kg의 체격을 바탕으로 제공권이 뛰어나다. 빌드업 능력도 갖춘 김주현은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드도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다. 또 빠른 템포로 공격 전환이 가능한 자원인 만큼 이장관 감독의 전술에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은 "역사가 깊은 명문구단 전남에 입단해 영광이다. 2023시즌 전남은 득점력이 매우 높았다. 2024시즌에도 높은 득점력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비수로서 최소실점에도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남은 앞서 U22자원으로 울산HD FC 유망주 김동욱(21)도 임대 영입했다.

184cm·75kg의 김동욱은 현대고와 단국대를 거쳐 2024년 울산에 입단했으며 왕벚, 중앙수비, 미드필드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김용환 김주현 김동욱

넓은 시야와 드리블 능력이 강점인 김동욱은 대학축구 U리그 2권역에서 단국대의 1위에 기여했으며, 지난해 제59회 춘계대학연맹전에서도 팀의 대회 첫 우승을 이끌며 수비상을 받았다.

김동욱은 "전남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다. 신인선수답게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팀 승리에 보탬이 되고 싶다. 많은 전남 팬 분들께 승리의 기쁨을 전해드리겠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새로 전남에 가세한 세 선수는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뒤 팀에 합류해 동계 전지훈련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남은 8일 태극으로 건너가 3주간 방콕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소화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80회 정기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Festival

일시 : 2024-01-16(화) ~ 2024-01-17(수)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정송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